

인공지능 무용수를 만나기 전에

Before Meeting the AI Dancer

이주원(Yi, Joo Won)*

한석진(2022). **디지털 퍼포먼스 미학**. 연극과 인간

I. 디지털 퍼포먼스로 한 걸음

이 책의 저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한석진 교수이다. 저자는 디지털 퍼포먼스의 개론서를 쓰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에필로그에서 밝혔다. 한석진 교수는 이 책에서 논의된 디지털 퍼포먼스 연구뿐 아니라, 기술과 예술의 융합적인 고찰을 전개한 바가 있다. 이 책은 디지털 퍼포먼스에 관한 미학적 이론과 심미적 논의를 함께 담고 있다. 이 책은 2022년에 나온 책으로 1장에서 논의되는 라이브니스에 관한 내용과 혼합현실 퍼포먼스, 포스트휴먼, 로봇 존재론을 거쳐, 7장의 인공지능까지 포괄적으로 디지털 퍼포먼스 미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각 사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이론적 관점에서 디지털 퍼포먼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책 장점은, 목차와 참고문헌을 제외한 180장의 압축된 핵심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저자의 목적하에 있던 개론서로서 손색이 없다. 이 책은 퍼포먼스에 관한 전공 배경에 무관하게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며, 디지털 퍼포먼스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에도 적합하다고 보인다. 또는 독자가 창작자라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할 수 있을지 고찰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AI 전환 시대에 도달한 현시대의 독자들은 디지털 퍼포먼스의 지난 흐름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는 동시대적 가치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는 학술적 촉매제가 될 것이다.

II. 흐름을 바라보는 여유

2022년,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2026년에 보아도 유용한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된다. 1장의 ‘매개된 라이브니스’에서는 매개와 재매개에 대한 담론, 실재와 재현의 가상 시대를 바라보는 철학적 지식이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되는 사례들과 더불어 독자는 현시대에서 다뤄지는 기술과

*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jwtaanz@cnu.ac.kr

의 협업 사례들을 연결해 보면, 라이브니스의 담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의 ‘몸과 가상성’에서는 의인화된 가상의 몸과 비의인화된 가상의 몸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사상이 논의되는데, 이 책에서는 아폴론적 미와 디오니소스적 미의 조화에 대해 언급한다. 디오니소스적 정신에 관한 논의는 디지털 퍼포먼스 미학에서 주로 다루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미는 해체와 해방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의 논의 이후 이어지는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성적 충동 논의, 그다음 이어지는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몸에 관한 실존주의적 현상학 등의 논의는 무용학에서 주로 다루지는 신체에 대한 담론과 접목하여 전개된다. 이 책은 이처럼 ‘실제 몸’과 ‘가상의 몸’에 관한 담론에 대한 주제를 독자에게 지속적으로 던져준다. 이로써 독자에게 몸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학술적 계기를 제공한다.

3장에서는 ‘혼합현실 퍼포먼스’가 논의 되는데, 독자가 개념을 혼동할 수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돕는다. 4장에서는 ‘파놉티콘과 감시 예술’을 논의한다. 파놉티콘은 벤담이 설계한 구울 권력 작용하는 감옥으로, 파놉티콘을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감시와 처벌』에서 감시에 의해 복종하는 신체에 대한 논의로 전개하였다. 이 책은 독자에게 디지털 퍼포먼스에게 행해지는 시선이 감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파놉티콘 사회의 태도와 행위가 은유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들을 저자는 본 장에 잘 정리해 두었으며, 이를 역전시킨 사례까지 이 책의 논리적 전개를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5장의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먼 그리고 사이보그’는 본 책의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트랜스휴머니즘 시각과 포스트휴머니즘 시각에서의 차이를 논의하는데, 표 한 장만으로도 간결하게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6장에서는 현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의 역할이 신체의 재현을 넘어, 인간과 로봇의 감정 교환과 같이 다층적일 수 있다는 것을 조명하고 있다. 독자는 6장의 ‘로봇 존재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본 장의 집필 당시에는 벌어지지 않았던 현상들이, 현재는 더 발전되어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7장에서는 ‘예술 창작의 주체로서 인공지능’을 논의한다. 이 장은 저자의 논문을 축약한 것으로, 전문은 논문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현시대의 독자들은 7장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7장으로 가기 전, 1장부터 6장의 과거 흐름을 되짚어볼 것을 권장한다. 현시대의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지연된 호흡일지라도 디지털 퍼포먼스에 관한 미학적 흐름을 고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열한 번째 무용수를 만나기 전에

이 책에서는 영국의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Wayne McGregor)가 2019 구글 아트 앤 컬처 랩(Google Arts & Culture Lab)과 협업하여 만든 작품 <리빙 아카이브(Living Archive)>에 대해 논의하는데, 리빙 아카이브는 맥그리거의 작품에 있는 동작을 토대로 Input을 넣고, 그 데이터에서 다시 시퀀스를 재생산하여 동작을 Output으로 만들어 낸 프로젝트였다. 맥그리거의 리빙 아카이브는 AI를 활용하여 창작 프로세스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보인다. 저자는 “맥그리거에게 인공지능은 ‘비개연적’인 움직임 시퀀스를 만들어 내는 열한 번째 특별한 무용수이며, 작품 <리빙 아카이브>는 인공지능

의 움직임 예측 및 재조합 능력을 활용한 맥그리거의 안무로 봐야 적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한석진, 2022, p. 179). 이 책을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디지털 퍼포먼스 작품에서 안무자의 역할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관객이 알아봐야 할 미학적 좌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현시대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 시대가 도래하였다. 무용가가 앞으로 “열한 번째 특별한 무용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퍼포먼스부터 인공지능 퍼포먼스까지의 미적 관점을 길러내는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을 무용학과와 디지털 퍼포먼스나 인공지능에 관한 수업을 이끌어갈 교수자에게 추천한다. 단, 이 책은 개론서이기에 내용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한편 이를 개괄적 고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을 교수자가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교수자가 추가로 각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의 깊이감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지털 퍼포먼스에서 파생되는 2026년의 논의와 새롭게 제기된 담론을 부연해야 할 것이다.